

玄鎮健 初期小說의 精神分析學的 考察

朴 海 俊*

一. 序 言

1896년 프로이드가 처음으로 정신분석(psychoanalysis)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래 이 말은 정신병 환자의 치료라는 영역을 넘어서 문학작품 내지는 예술작품의 분석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환자의 심리 저변에 억압된 무의식 세계를 분석해 내고 그것을 언어로 표출해 냄으로써 정신병의 원인을 밝히고자 했던 이 정신요법(psychotherapy)은 언어를 매개로 한 환자와 치료자 사이의 문제 해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학작품을 매개로 한 작자와 독자간의 문제해결이라는 차원으로 발전하여 문학작품 분석, 즉 작자의 심리 분석, 등장인물의 심리 분석은 물론 프로이드의 상징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으로 적용되어 작품에 구현된 작자의 의도를 밝히고자 했다.

이에 대한 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 神經精神醫學會誌에 발표된 趙斗英의 論文¹⁾에서 해당 부분을 인용하기로 한다.

“정신분석을 가지고는 예술적 재능의 성질이나 예술가의 기교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창작물을 예술적 기준에서 평가할 수는 없다.”는 前提를 둔 Freud²⁾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써 作家와 作品을 정신의학적으로 이해하는 길의 문을 더 넓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작가의 心理構造의 파악이다. 우리는 그 예로 詩的 活動의 첫 흔적 일부를 그 詩人의 幼年期에서 찾으려 해야겠다. 어린이가 가장 열심히 즐기는 일은 놀이(play)이다. 놀고 있는 어린

* 국어국문학과 동문

- 1) 趙斗英: 李箱 初期作品의 精神分析(Vol. 16, No. p.8~9. 1, 1977)
- 2) Freud, S.: Creative Writers and Daydreaming. (1908, English St. Edition (8th ed), The Hogarth Press, London, IX, p.141~156.

이는 모두가 하나의 독특한 세계를 만들어 냄으로써, 즉 自己世界의 事物을 자기 마음에 드는 새로운 질서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어른인 시인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어린이도 성장함에 따라 놀이물 그치고 空想(fantasy)과 白日夢(daydream)으로 이를 代置(substitute)한다.

空想의 특징은 첫째가, 불만족한 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공상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充足을 받지 못한 所願이 바로 공상을 낳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하나의 空想은 어느 한 所願의 충족인 동시에 불만족한 現實에 대한 心的 修正作用인 것이다.

둘째, 공상은 과거·현재·미래의 세 時間 사이를 왕래한다. 현재 겪고 있는 일 가운데서 그 어떤 것이 그가 지내온 어떤 소원을 환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여기에서 예전의 그 생생한 인상에 연결시키는 정신작업이 일어난다. 마음의 작업은 즉 그 소원이 충족되지 못하였던 옛날의 체험(대개는 幼年期的의 체험이 되겠지만)을 기억해 내며, 여기서 다시 미래에 관련된 상황 즉 완전히 충족된 어떤 상황(바로 백일몽)을 만들어 내거나 아니면 현재의 그 계기의 흔적과 과거의 자취를 한데 지니고 있는 어떤 공상을 만들어낸다. 그리하여 과거의 것, 현재의 것, 미래의 것은 한 줄의 소원의 실로 모여있는 것이다. ……中略 詩나 心理小說에서는 주인공인 어느 한 인물만이 예외없이 內部로부터 묘사되어 있다. 왜냐하면 바로 作家가 그 주인공 마음 한가운데에 앉아서 내부로부터 밖의 인물들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인간은 현재 그가 겪는 어떤 강한 체험이 계기가 되어 있었던 어린 시절의 체험이 일깨워지며, 그가 시인일진대 그가 만드는 작품에서나마 이를 충족시키려는 소망이 생기게 마련이다. 고로 작품 그 자체에서 우리는 그가 가진 어린 시절의 기억의 일부로 최근에 겪었던 어떤 자극적인 誘因의 일부를 함께 볼 수가 있다. ……中略 그러나 자기가 범한 罪目은 때에 따라서 대라면 멀지언정 자기가 하는 공상의 내용은 그런 경우에도 좀처럼 말하지 않을 정도로 공상을 하는 인간은 대체로 그 내용을 남들에게 감춘다. 공상하는 내용에 자신이 부끄러워할만한 까닭이 있기 때문이다. 또는 실사 그 공상내용을 남에게 말한다 하여도 그 노출이 남들에게 조금도 즐거움을 주지 못하며 심지어는 그들은 뒤에 불쾌해 하지 않으면 냉담해지기도 한다. ……中略 그러할진대 자기의 공상과 백일몽을 남에게 알려주고 정반대로 기쁨과 즐거움까지도 남들이 느끼게끔 하는 詩人과 作家들은 무슨 기술을 가졌을까.

요컨대 이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백일몽을 인간 모두가 인정하고 싶은 것으로 바꾸어 얘기해 주면 독자들은 그 共通分母에서 생기는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이다. 즉, 이들은 나의 自我와 남의 自我를 막는 장벽, 그 장벽에 붙어있는 혐오감을 제거하는 특수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인은 자기의 공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純形式的인, 즉 美的인 쾌감을 줌으로써 우리를 농락한다고나 할까.”

그후 1910년에 Freud는 「레오나르도·다·빈치」에 대한 作品分析³⁾에서 인간은 그 유년기 만 3세 전후하여 일어나는 性에 관한 흥미와 이에서 야기된 好奇心을 세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다·빈치」의 경우는 그 리비도(libido)의 대부분을 研究欲으로 승화시키는데 성공하는 길을 걸었다고 하여 ‘예술의 길은 성공적인 리비도 승화의 길’이라는 한 마디 교과서적 표현을 남게 하였다.

이러한 Freud의 해석에 기초를 두고 출발한 作家心理研究는 百家爭鳴의 급템포로 전파되어 극단적인 어느 분석가는 ‘작가들이란 어린 시절 그를 당혹하게 만들었던 인생문제에 포로가 되어 그 뒤로는 정신적 성장이 중단된 사람들’이며 ‘自己愛(narcissism)가 강한 사람들이 작가인 고로 바꾸어 말하면 자기 것만 사랑하는 어린애같은 사람들’⁴⁾이라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것이 도리어 作家와 批評家들이 정신분석의 횡포를 규탄하는 현상을 빚게 하였다.

작품을 만들 당시의 특수한 時代的 條件과 작가의 특수한 사회적 환경이 작품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정신과 의사는 경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들어 Hartman, Loewenstein, Kris⁵⁾등은 生物學的 뿌리(biological roots)보다 社會的 面을 강조하여 그 근거를 그간에 발전한 自我心理學에 두었다. 이와는 좀 다르게 Bergler는 「作家라는 현상」을 生物學的인 것과 心理的인 그 어떤 것이 곱해져 된 것이라 하면서 生物學的 요소로서 口腔性(orality)과 觀淫性(voyeurism)이 박탈(deprivation)된 상태를 포함한 口腔性傾向(oraltendency)의 量的 增加를 말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Kris의 공적은 「自我를 위한 退行현상(regression in the service of ego)이라고 창작활동을 해석한 것이다.

그에 의하면 창작이란 어떻게 보면 꿈의 作業과도 비슷하나 꿈에서는 이드(id)가 지배권을 장악하는 반면 창작에서는 自我가 장악하고 있다고 하였고,

- 3) Freud, S.: Leonardo da Vinci and Memory of His Childhood Part I. (1910, Biographical Material, Eng. St. Ed(8th ed.), The Hogarth Press, London, XI, p. 63~138.
- 4) Rolo, C.: Psychiatry in American Life (1966, Delta Publishing Co. New York, p. 212~216).
- 5) Kris, E.: Psychoanalytic Explorations in Art (1952, 3rd Printing(1971) Schocken Books, New York, p. 20~23).

'이드 資料에 압도당하지 않으면서 손쉽게 그것에 접근하고 출입할 수 있고, 또한 一次過程(primary process)에 대한 통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정신기능을 재빠르고 적절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自我를 위한 退行」을 설명하였으니, 要는 「完全장악하에서의 退行」⁶⁾이라고 한 마더로 말할 수 있겠다. 뒤에 作家·精神分裂症患者·平凡한 인간의 세 집단을 「로르샤흐」 심리검사법을 써서 더코래 본 Phillips는 作家群에서 다른 집단보다 좀더 쉽게 進行(progression)과 退行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고한 일도 있다.

이러한 作家와 作品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는 그 진형적인 전문지로 美國의 季刊 「American Imago」를 비롯하여 歐美의 여러 分派의 정신분석학회지와 소아정신분석학회지에 쉬지 않고 발표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力動精神科學의 도입이 6·25 이후라는 이유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였고 설사 있다손 치더라도 그 발표가 學術誌를 통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여하튼 우리나라에서의 이 분야 연구는 1956년 詩批評家協會에서 강연한 兪碩頌의 「李箱의 精神力動學的 考察」로 시작되었다. 兪는 이어서 「畫家 李仲燮의 精神分析學的研究(1962)」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연차 학술대회에서 口演하였고, 주인공을 假神經症型 精神分裂症으로 해석한 「詩人 李箱의 精神醫學的研究(朝鮮日報 1964)의 개요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閑中錄」에 근거하여 思悼世子의 병력을 분석한 뒤 그 갈등의 원인이 되는 <에디프스·콤플렉스>의 동양적 해결방법이 親子殺害로 나타났음을 보고한 李揆東의 「衣帶病에 對한 精神分析學的 考察(1969)」이 대한신경의학회지에 게재된 최초의 이 분야 논문으로 되어 있다.

病跡學의 개념을 소개한 金鍾殷(醫脈 1972) (그는 여기에서, 한 인간에게서 정신병리학적으로 흥미로운 정신생활을 조사하여 그의 정신적 異常性이 창작력에 어떤 뜻을 지녔는가를 연구함이 病跡學이라고 한 Jaspers, 한 인간의 생활과 작품을 토대로 연구함으로써 천재적 재능과 非正常性의 특성을 찾아야 한다고 한 Gruhle, 예술가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 불균형상태에 있던 한 人格이 창작에 의해 또는 창작과정 중에서 새로운 균형을 발견하는 進化의 과정임을 주장한 Delay 등의 이론을 소개하였다.⁷⁾은 뒤이어 「李箱의 理想과 異常(文學思想, 1973)」, 「素月の 病跡(文學思想, 1974)」, 「李箱의 精神世界(心像, 1975)」를 발표하였다.

日本人 伊東도 우리 학회 회원에게 헤밍웨이의 「우울偏執 콤플렉스」를 간략

6) Linn, L.: Hanobook of Hospital Psychiatry(1955, I.P.U. New York p. 60)

7) 金鍾殷: 天才와 狂人の 病跡學, (醫脈, 카톨릭醫大, 7: p. 202~215, 1973)

히 소개한 바 있으며,⁸⁾ 최근에는 金鍾殷이 「精神分析과 性(文學思想, 1976)」에서 Freud의 예술분석이론과 실례를 소개하였고, 李揆東은 詩와 人物을 연결하여 주인공의 〈男性 콤플렉스〉의 능동화를 언급한 「黃眞伊의 色情世界(臨床醫學, 1976)」를 발표했다.

以上の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20 세기에 들어와서 팔목할만한 발전을 거듭하게 된 정신분석학은 문학과 예술작품의 분석에도 적용되어 인간의 내면세계를 추구하기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작가들도 그 내면세계를 작품으로 형상화하여 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신분석학의 흐름은 물론 프로이트와 그 學派가 主流를 이루어 지속되어 왔지만 문학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그의 理論이 다소 수정 보완되는 경우도 있었다. 즉 原型(Archetype)理論에서 융의 심층심리학에 의해 프로이트의 무의식理論이 보완되기도 했으며, 문학비평 내지는 철학적 영역으로의 발전과정에서 라캉(Jacques Lacan: 1901~1981)에 의해 수정되기도 했다.

라캉은 프로이트의 무의식이란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프로이트가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무의식에 잠재된 꿈사상을 인정했으나, 그는 그와 같은 근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프로이트의 무의식은 言語가 형성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며 본능적인 것을 대표하는 집합체로서 이것은 언제나 현실과 타협을 하는 초자아(super-ego)와 자아(ego)의 조정을 받아야 했다. 압축(condensation)과 자리바꿈(displacement)을 일으키는 記表의 영역 외에 다시 분별과 상징이라는 記意의 영역을 인정했으나 라캉에게 있어서는 무의식은 언어와 동시에 형성되며 언어처럼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언어의 산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유스러운 본능적 에너지의 영역으로 안정과 단합을 모르며, 이 욕망 즉 무의식이라는 〈응시〉의 시선은 열린 상태로 상징적인 질서 속으로 들어가 계속 〈보여짐〉이라는 의식의 시선과 뫼비우스의 띠처럼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주체는 압축과 자리바꿈을 일으키는 記表의 영역으로 확장된다.

다시 말하면 프로이트는 꿈작용이나 말 실수(slip) 등을 설명하면서 무의식에 잠재된 욕망은 超自我의 조정을 피하기 위해 압축되고 자리바꿈을

8) 伊東高麗夫 : 精神醫學과 病跡學, (신경정신의학, 12 : p. 178~182, 1973).

한다고 했으나, 라캉은 超自我·自我·衝動(id·무의식)으로 三分되었던 프로이드의 의식주체가 記表의 차원, 즉 포(Adgar Allan Poe)의 「도둑맞은 편지」⁹⁾에서 보듯이 記表가 주체를 다스리기 때문에 무의식의 차원으로 바뀐다고 했다.

라캉의 정신분석학에 있어서는 치료자가 환자의 꿈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그 꿈이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한다. 그러므로 환자는 기억하기에 치료되는 게 아니고 치료되었기에 기억한다. 따라서 치료자는 정신질환의 본질을 알아서 치료하는 게 아니고 담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치료법을 추출해 낸다. 이런 점에서 그의 정신분석학은 본질을 찾는 과학이라기보다 치료자와 환자 사이의 담화에서 해답을 찾는 서사학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의 세미나인 「도둑맞은 편지」에 의하면 애기가 태어나서 대략 6개월 내지 18개월 사이에 총체적이고 자율적인 개체로 상상하는 단계에 이르는데 이를 〈반영단계(mirror stage)〉 또는 〈상상계(The imaginary)〉라고 부른다. 애기는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그것을 하나의 이상적 자아로 생각하고 개체의식을 갖는데 이때의 결핍과 不在(absence)는 환상으로 채워져 총체화된다. 그러나 아직은 억압(repress)이나 무의식이 생성되지 않은 순수한 주관적 세계를 갖는 단계이지만 사회적 제약이요, 언어의 질서인 〈상징계(The Symbolic order)〉로 들어서면 상상계는 억압되어 무의식 또는 욕망의 심층이 되고 이에 따라 의식(상징계)과 무의식(상상계)의 분열이 생긴다. 그리고 동질성을 추구하는 상상계와 자리바꿈을 일으키는 상징계는 피비우스의 따처럼 상호작용을 일으켜 〈실체(The Real)〉를 형성하며, 이 실체가 바로 결핍이요, 혼동이고 분열된 주체에 의해 창조된 말의 세계다.

여기에서 라캉은 소쉬르의 언어관에서 야콥슨(Roman Jakobson)이 발전시킨 은유(metaphor)와 근접(metonymy)의 二分法을 〈세미나〉의 〈記表〉라는 무의식의 차원에 적용하여, 동질성을 추구하는 상상계는 대치(代置) 또는 은유요, 자리바꿈을 일으키는 상징계는 근접 또는 자리바꿈이라 하여, 상상계인 무의식이 잃어버린 대상을 부단하게 쫓는 동안

9) Jacques. Lacan: Seminar on 「The Purloined Letter」. (Yale French Studies, 48, p. 39~72. 이 논문은 1966년에 출간된 Ecrits에 포함되어 있음.)

상징적인 의식은 계속적으로 언어의 지배를 받아 자리바꿈을 하므로 욕망은 끝없이 지연된다. 따라서 인생의 목적이란, 의식이 설정한 질서이므로 거기에 도달하면 저만큼 물러서는 신기루와 같은 욕망의 산물이며, 그 욕망은 결코 성취되지 않는 영속적인 결핍이요 不在다. 따라서 대상이 욕망을 만족시킨다는 가정이 <상상계>라면 영속적인 결핍과 不在를 깨닫는 것이 <상징계>다.

이상과 같이 프로이드가 억압된 욕망의 영역으로 명명한 무의식에 은유와 자리바꿈의 二分法인 소쉬르 언어관을 적용하여 記表의 주체를 설명하려고 한 라캉의 정신분석법은 인식주체의 해체라는 측면에서 유효적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문학작품 분석, 다시 말하면 작자와 작품 속의 등장인물의 정신분석은 신경정신의학의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재론할 여지가 없거니와 프로이드의 상징 또한 그의 정신분석학의 토대 위에서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분석학적 연구방법이 지나치게 강조될 때 나무를 보았으나 숲은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폭 좁은 해석법으로 전락하기 쉽다는 비난을 받았고, 그것은 또 하나의 논리가 지닌 한계인 동시에 이 방법이 지닌 한계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本論文에서는 玄鎭健의 生育과 生活史 및 親族관계와, 해당 작품의 作中人物의 정신분석을 프로이드와 그 學派의 정통적인 분석법에 따라서 진행하겠거니와 개개의 작품 및 그것에 상호연관된 작품전체의 연구와 평가는 정신분석학적 문학비평의 原論이라고 할 수 있는 라캉의 해체론적 이론을 수용하면서 사회학적 고찰과 文藝論的 觀點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한다.

二. 玄鎭健의 家族과 親族關係 및 그의 生育과 生活史

延州玄氏 七修大同譜에 따르면 六代祖 泰衡은 공조참의, 五代祖 商伊는 호조참의, 四代祖 時錫은 호조참판, 증조부 敬敏과 종증조부 好敏은 宮內部 勅任官인 協辨을, 종증조부 漢敏은 호조판서, 종조부였다가 종증조부에게 입양된 玄哲의 부친 學斗는 侍從院 副卿을, 조부 學均은 무과에 급제한 후 內藏院 卿을 역임, 舊韓末 창원 감리 겸 재판소 판사를 지

였으며, 父 擊運(慶運이 아님)은 長子로 舊韓末 통신원 전보국장을 역임, 대구 우체국장 시절에 母 李貞孝와의 사이에서 鎭健이 四男으로 1900년 음력 8월 9일에 出生했다. 위로 鴻健, 爽健, 鼎健, 세 형이 있었고, 생모가 1910년(玄鎭健의 나이 만 10세때, 이하 단 연령으로 함)에 別世하자 후실 旌善 全氏에게서 난 동생 聖健이 있다. 부친은 玄鎭健보다 3년 뒤인 1946년 11월에 別世했다.

外家は 宛山 李氏 집안으로 외조부 在淵은 호조참의를 역임했다.

叔行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형제들의 관직 또는 사회활동 상황은 다음과 같으며, 이 기록은 기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金容誠의 저서 「한국문학사 탐방」과 崔元植의 「현진건 연구」, 玄吉彥의 박사학위 논문인 「玄鎭健 小說 研究」 등의 각종 자료를 검토하여 보완했다.

轍運은 용궁 군수를 지냈으며, 暎運은 관립 영어학교 1회 졸업후 관비 유학생으로 派日되었다가 1885년, 유학생 소환자 중에 끼어 귀국해서는 甲申政變으로 폐간된 漢城旬報를 복간하는데 참여했다. 그리고 1888년 宮內部 參理官이 되고 皇國協會 기관지 역할을 했던 時事叢報 창간에 참여하여 皇城新聞과 合流하기까지 그 일을 보았다. 1896년 개화당 무고사건에 관련되기도 했고, 1900년에 宮內部 번역관, 禮式院 번역관이 됐으며 1904년 사법제도 및 행정업무를 시찰하러 일본에 다녀오고, 1905년에 農商工部 協辨에, 1906년에 육군參將에 임명되었다. 그는 근대화 과정에서 개화파의 젊은 기수로 활약,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적극 참여하다가 불가피하게 식민지 현실을 수용하는 비운을 겪어야 했다.

暎運 역시 관립 영어학교를 졸업하고 宮內部 禮式院 主事, 太僕司 技師를 지내고, 宮內 통역일을 하다가 원산과 동래고보 영어교사로 재직하기도 했으며, 대한체육구락부 창설 멤버이기도 했다. 鵬運도 역시 太僕司 기사였다.

1919년에 入養, 養父가 된 五村당숙 普運은 관립 日語학교 1회 출신으로 육군 正尉를 거쳐 외국어학교 교관, 궁내부 번역관, 예식원 參理官 등을 거쳐 일본 공사관 이등 서기관을 지냈다. 再從叔인 僖運은 초기 연극인으로 문화계에서 크게 활동한 인물이었고, 그의 소개로 玄鎭健이 「開關」 11월호에 처녀작인 단편소설 〈犧牲花〉를 발표하기도 했다.

再從叔 百運은 內藏院 工業課長, 李王職 사무관, 禮式課長 등을 역임했다.

만형 鴻健은 러시아사관학교 출신으로 海外에서 활동하다가 귀국, 러시아대사관 통역관, 육군 副尉를 지냈고, 仲兄 爽健은 일본 明治大 출신으로 변호사를 개업, 동생 鼎健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투옥되었을 때 변호를 맡기도 했다. 세째형 鼎健은 외국어에 능통, 일찌기 상해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소위 한인청년회 사건으로 1928년 변동화 등과 함께 체포되어, 치안유지법으로 그해 12월 21일에 징역 3년을 언도받고, 평양형무소에서 복역, 만기출옥했다가 1932년 12월 30일에 사망했다. 부인 尹氏도 뒤따라 殉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화파의 중심인물로 활약하다가 식민지 현실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仲父 曠運의 비극과 그에 상반되는, 식민지 현실을 행동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鼎健兄의 활동과 죽음이 憑虛의 의식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再從 尙健은 宮內部 번역과장, 鑛務學校 교장, 禮式院 의무과장, 프랑스공사를 거친 反日 강경론자로 李容翊과 함께 韓日議定書 조인을 분쇄하기 위해 한국독립을 자국에 통고하는 일을 맡았었다.

이상과 같이 玄鎭健의 家族 및 親族들은 대한제국 말기의 격동기에 처하여 새로운 문화와 정치적 개혁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 면모를 찾아볼 수 있으며, 上記 官職과 사회활동을 고려해 볼 때 종래의 武弁·中人·譯官 집안이란 인식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개화기에 있어서 외국어에 능통하다는 것은 새로운 문화의 수용적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하지, 봉건적 직업의식에서 평가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본다.

전통적인 士大夫家에서 성장한 玄鎭健은 열살 때 生母를 여의고, 만 열 다섯에 대구 부호며, 進士 李吉雨의 딸인 두살 연배의 順得과 早婚했다. 고향에서 한문을 수학했던 그는 결혼하던 해인 1915년에 상해로 갔다가 1916년에 귀국, 다시 만형 흥건의 권유로 일본 동경엘 가서 수험공부를 목적으로 正則豫備學校(또는 正則英語學校)에서 수학하다가 이듬해 3월 잠시 귀국, 대구에 머물렀던 그는 4월에 다시 동경으로 건너가서 成城中學校 3학년에 편입, 독일어를 선택과목으로 하여 공부했으나 1918년 여름 4학년을 중퇴하고 귀국했다가 다시 집안 몰래 정건형을 찾아 상해로 가서 滬江大學 독일어 전문부에 입학했다.

1917년에 그는 李相和, 李相栢, 白基萬과 함께 作文誌 「炬火」를 출간했고, 1920년 12월에 완성해서 1921년 「開關」 1월호에 발표한 〈貧妻〉(흔히 出世作으로 본다)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는 걸로 보아, 그의 초기작품이 自傳的 요소가 얼마나 강했는가를 실감케 한다.

“6年前에(그때 나는 16歲이고 저는 18歲이었다) 우리가 結婚한지 얼마 안 되어 知識에 목마른 나는 知識의 바닷물을 얻어 마시려고 飄然히 집을 떠났었다. 狂風에 나부끼는 버들葉 모양으로 오늘은 支那, 來日은 日本으로 구울러 다니다가 金錢의 탓으로 知識의 바닷물도 흡션 마셔 보지도 못하고 半겨워송이가 되어 집에 돌아오고 말았다.”

1919년, 憑虛는 五寸당숙 普運에게 入養되어 처와 함께 대구에서 서 울로 올라와, 관훈동 52번지 普運의 집에서 생활했으나 養父는 이때를 전후해서 사망했으며, 그해 조선웅변회를 조직하여 활동하면서 외국소설을 번역, 발표하다가 처녀작 〈회생화〉를 거쳐 〈빈처〉 등을 발표함으로써 작가로 문단에 등단했다.

1920년 조선일보에 입사, 記者로서의 직업인이 되고, 1921년 〈빈처〉 발표후 「白潮」同人으로 참가, 단편 〈술 권하는 사회〉를 「개벽」 11월호에 발표했다. 1922년, 「白潮」同人誌가 창간되었고, 중편소설 〈墮落者〉가 「개벽」 1~4월호에 연재되었다. 1923년, 조선일보를 그만두고 최남선이 주재하는 「東明」의 편집 동인이 되었다가, 時代日報를 거쳐 1925년 동아일보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고집이 세고 의지가 굳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家門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反日思想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가 표면적인 행동으로 적극적인 對日투쟁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조선일보를 그만두게 된 원인도, 망년회 자리에서 조선일보의 大正친목회 중심인물이요, 친일파의 거두인 宋秉畷을 욕했기 때문이다. 그는 언제나 한국인과는 얼굴을 맞대고 불만을 토해냈으나 日本人과는 결코 사귀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외양을 묘사한 方仁根의 회고기를 인용해 보기로 한다.

“그는 꼭 씨암탉처럼 살이 포동포동 찌고 역시 키도 작달막하게 걸음걸이조차 씨암탉처럼 아기죽아기죽하였다. 살결도 희고 맑으며 賈公子 타입으로 예쁘장스러운 美男이었다. 나를 톡 치고 꺾꺾 웃고는 내가 귀엽다는 듯이 만히 쳐

다보는 눈매는 女子처럼 매력있고 사람 반할 만하다. 술이 취하면 그 예쁜 눈이 제슴츠레해지고 바르르 땀다. 눈썹은 시커멓고 굵어서 壽를 할 줄 알았는데 웬 일인가. 입도 조그마하고 예쁘장스러워 언뜻 女子같기도 하다. 면도를 여러 날 아니하면 수염이 진성 드뭇하게 나는데 그게 까맣지 않고 노르스름한 것도 애교다. 그리고 보니 눈동자도 좀 노르스름한 것 같다. 눈동자가 노라면 재주 있다더니 과연 그런가보다. 春園의 눈동자가 그러했다.”¹⁰⁾

方仁根이 본 女性的인 외양과는 달리 그는 외유내강했다.

1925년까지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하다가 조선일보 합평회에 참여하고 문예지에 月評을 쓰면서 창작활동이 뜸해졌다. 그 기간에 비평문을 자주 썼으나 프로문학의 논쟁에는 관여하지 않고 1925년에 작품집 「조선의 얼굴」을 출간했다.

1927년 7월 〈新聞紙와 鐵窓〉을 발표할 때까지 뚜렷한 작품을 발표하지 못하다가, 1929년, 우리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위해 역사의 현장순례에 나섰다. 이 무렵부터 망각되어 가는 민족의 실체를 확인하고자 했던 투철한 역사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날로 가혹해지는 日帝의 탄압에 대하여 민족의식을 위장, 승화하기 위한 역사소설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1932년이 저물 때, 만기출옥했던 정진형의 죽음에 이은 형수의 죽음, 그리고 養祖母와 養母의 죽음은 그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본다.

1936년, 동아일보 사회부장 재직시 손기정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의 일장기 말살 보도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1년간의 옥고를 치루고 이듬해 출옥, 기자직을 사임하고, 관훈동에서 부암동으로 이사해 양계를 하면서 장편 〈赤道〉에 이어 역사장편 〈無影塔〉을 동아일보에 연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시대의 삶에 대한 자신의 작가적 진실을 총체화한 작품으로 새로운 모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黑齒常之를 연재하다가, 백계 再建의 장수 이름을 딴 제목 때문에 총독부에 의해 연재 중단되어 미완성으로 끝났으며, 작품집 「朝鮮의 얼굴」도 금서처분을 받았다.

玄鎭健은 마지막 작품 〈善花公主〉를 「春秋」에 연재하다가 완성을 보

10) 方仁根: 憑虛懷古記(現代文學, 1962년 12월호)

지 못하고, 타계하기 1년 전 궁색을 면해 볼 양으로 米豆에 손을 대어 보았으나 실패해 자하문 밖 양계를 하던 집을 팔고 제기동 고대 정문 맞은편 골목의 초가로 이사했다. 그는 빈곤과 장결핵으로 인한 병마의 고통이 그 극에 달해 1943년 음력 3월 31일, 부인과 외동딸 화수(월탄의 자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화장을 하라”는 한 마디 유언을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三. 玄鎮健 初期小說 〈犧牲花〉의 概要

1920년대의 한국식민지 사회는 3·1 저항운동의 여파로 민족각성에 눈을 떠, 민족자립의 기초는 민족문화의 향상에 있음을 깨닫고 교육진흥, 물산장려 등에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日本은 齊藤實을 새 총독으로 보내어 소위 文化政治를 표방하고, 제도의 일부 개혁, 신문의 발행 등을 허가하는 회유책을 썼으나 근본적으로는 악랄한 식민정책의 기만적인 위장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상황 속에서 전통적인 사회구조를 거부하고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개인의식의 발로에서 시작된 우리의 근대소설은 봉건적 인습에서 벗어나 근대적 자아를 인식하고 이를 작품 속에서 실현하려는 노력이 더욱 활발하게 가속되었다.

玄鎮健의 初期小說도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처녀작 〈犧牲花〉가 봉건적 인습에 희생당한 남녀 간의 사랑의 비애를 주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품집 「墮落者」에 수록된 〈貧妻〉, 〈술 勸하는 社會〉, 〈墮落者〉가 모두 〈나〉 또는 〈남편〉으로 나타나는 시점을 통하여 과도기 지식인의 사회적 욕망과 그 좌절에 따른 갈등을 다루고 있다. 本稿에서는 以上の 初期作品中 우선 試論으로서 첫 작품인 〈犧牲花〉를 分析하기로 한다.

〈犧牲花〉가 「開關」誌에 처음 발표되었을 때 黃錫禹는 ‘허위와 과장이 많고 묘사도 불충실하며 예술 형식을 갖추지 않은 작품’이라고 혹평을 했으며, 白鐵은 ‘감상주의적 작품으로서 그의 티엘리츨 계열에서 벗어난 작품’이라 했고, 윤병로도 ‘감상적이고 미숙한 작품’으로 보았으며, 조연현은 그의 문학사나 작가론에서 아예 취급하지 않았다. 최근에 와서도 임형택은 ‘가족주의의 질곡에서 이상의 좌절을 그린 작품’이라 했

고, 정한숙은 '감상적 사랑의 비애를 그린 작품'이라 하여 대수롭게 평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숙한대로 근대적 자아인식의 결과로 나타난 사랑의 인식이 그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가 당면한 현실의 인습과 봉건적 잔재를 청산하고자 한 점에서 근대소설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근대적 자아각성을 주제로 한 다음 단제의 작품인 〈貧妻〉, 〈술 권하는 社會〉, 〈墮落者〉와 일련의 연계관계를 이룬다는 점에서 그 나름의 문학적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犧牲花〉는 일인칭 목격자인 〈나〉가 10여년전의 〈누님〉의 사랑얘기를 회상하여 진술하는 애상적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주인공인 누님(S, 18세)과 K는 ○○학교 여자부와 남자부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며, 목격자 〈나〉는 같은 학교 2학년 재학생으로 누님보다 4년 아래다.

창경원 벚꽃이 한창이던 봄날에 누님을 따라 꽃구경을 간 〈나〉는 〈K〉를 보고 비로소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세살 때 목사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편모 슬하에서 자란 〈나〉는 누님에게 “인제 네가 어디 나가거든 꼭 네 동생을 데리고 다녀라”는 어머니의 말에 따라 두 연인이 밀회할 때마다 따라다닌다.

어느 여름날 南山에서 밀회를 즐기던 S와 K는 부모 몰래 서로 약혼을 맹세하고선, S가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낸다. 그러나 워낙 완고한 봉건적 가문의 자손인 K는 이러한 사실을 편지로 써놓고도 大邱本家에 부치지 못할 정도로 용기가 부족하고 소극적이다. S를 사귀고 있는 것을 눈치챈 本家에서는 祖父가 上京하여 家門에서 定婚해 놓은 혼처에 장가들도록 호통을 친다.

“이놈 아직 學生이니 장가를 못 가겠다? 핑계야 좋지, 이놈 폐쇄한 놈. 들으니 네가 어떤 女學生을 얻어가지고 미쳐 날뛰다는구나! 아니요야란 다 무엇이야. 父母가 들이는 장가는 學生이라 못가겠고, 學生身分으로 제집은 해도 관제잖으나, 이놈 고약한 놈! 비 願대로 그 學校나 마치고 장가들일 것이로되, 벌써 어린놈이 못 견뎌서 女學生을 얻느니, 무엇을 얻느니, 그냥 두다간 네 身世를 亡치고 家門을 더럽힐 터이야. 그래서 하루바삐 定婚하고 姻需까지 보내었는데 至今 와서 가느니 마느니 하면 어찌 하잔 말이냐. 암만 어린놈의 소견이기로……그 집은 蔚山 일판에 有名한 집안이라 財産도 있고, 兩班도 좋

고……다된 婚姻을 이便에서 退婚하면 그 新婦는 生寡婦로 늙으란 말이나, 一婦含怨에 五月飛霜이란 말 못 들었어! 죽어도 못가겠다. 허허, 이놈 撲殺할 늬, 祖父母도 끊고, 父母도 끊고, 一家親戚도 끊으려거든 네 마음대로 좀 해 보아라.”

祖父의 호통으로 大邱에 끌려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될 궁지에 몰린 K는 S를 찾아와서 멀리 달아나겠다고 하며 S와 안타까운 작별을 나누는 뒤에 지향없이 떠나가 버린다. 그 後 S는 시름시름 앓다가 피골이 상접하여 숨을 거두고 만다.

四. 玄鎮健과 〈犧牲花〉分析

序言의 인용에서 설명한 대로 사람에게는 그가 과거에 체험한, 특히 어린 시절에 체험한 상처(trauma)나 박탈(deprivation), 좌절(frustration)을 보상(compensation)받으려는 욕구가 있다. 다시 말하면 훗날 空想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것을 충족시키려는 욕구가 있으며, 작가에게는 공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작품이 처녀작인 경우, 특히 思春期나 靑少年期에 창작되어지는 작품인 경우에, 좀 미숙한 自我防禦機制과 文學의 기교 때문에 옛날의 상처와 감정(affect)이 변형, 위장되지 않은 채로 그 작품에 노출되는 수가 많다. 크리스는 그 작품의 성격과 내용이 그 뒤에 창작된 작품과 틀리는 경우와, 그것의 창작이 오랜 공백기를 거쳐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더욱 그럴 수가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창작이란 어떻게 보면 꿈의 작업과도 비슷하나 꿈에서는 이드(id, 무의식)가 지배권을 장악하는 반면 창작에서는 自我(ego)가 지배권을 장악한다고 했고, 이드자료에 압도당하지 않으면서 손쉽게 그것에 접근하고 출입할 수 있으며, 一次過程(primary process)에 대한 통제를 계속 지유 하면서 정신기능을 재빠르고 적절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自我를 위한 退行현상을 설명했다.

그런 의미에서 玄鎮健의 처녀작 〈犧牲花〉는 작품이 미숙한 대로 그의 의식세계와 무의식세계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회생화란 바로 이 소설의 주인공이요 〈나〉의 누님인 S의 은유적 표현이고, 남동

생과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그녀의 집안은 작교한 아버지가 기독교의 유능한 목사로 활동했으며, 딸의 고등교육(그 당시로서는)까지 시킬 정도로 개화된 집안이다. 그리고 S는 남자주인공인 K에 대한 사랑의 인식이나 대응양식에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

이에 대조적으로 K의 집안은 부모가 정해준 혼처에 결혼해야 하는 인습적 결혼관을 가진 완고한 봉건적 가문이며 K는 능동적으로 자기 주장을 집안 어른들에게 내세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연을 쓴 편지조차 부치지도 못하는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인물이다. 자기 의견을 내세워 보았자 봉건성을 상징하는 祖父에게서 목살당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특기해야 할 것은 玄鎭健의 정신분석학적인 의식세계다. 그의 10세 이전의 어릴적 生育과정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신분석상 많은 곤란이 있지만, 그 이후의 객관적 사항과 작품들을 토대로 그의 정신세계를 추적해 가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그의 早婚이다. 이것이 그의 처녀작 <회생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열살 때 生母가 돌아가시고 계모 밑에서 자랐다는 것이다. 세째로 형제 중에 姉妹가 없고, 비껴 막내로 자라나서 19세 때 양자로 入養되었으며 다섯째 士大夫 가문이긴 하나 비교적 開化된 집안에서 자랐고, 여섯째 그가 잘 따랐던 세째형인 독립지사 정건과 형수, 그리고 양부, 양조모, 양모의 죽음을 들 수 있다.

먼저 早婚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5세 때 두 살 위인 大邱의 부호 進士 李吉雨의 영애 順得과 결혼했다. <貧妻>에서 主人公 <나>를 통해 말했듯이 결혼한지 얼마 안 되어 상해로, 동경으로 싸돌아다닌 점으로 미루어 보아 自意로 早婚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士大夫家의 체통과 인습적인 관례에 따라 家門의 命에 따랐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회생화>에서 K가 祖父의 命에 따라 家門에서 定婚한 혼처에 장가들지 않으면 안 되었던 운명과 同一하다. K와 玄鎭健의 고향이 같은 大邱라는 점에서 이것을 더욱 뒷받침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K는 멀리 달아났지만 玄鎭健은 순순히 따랐다는 것 뿐이다. 이는 곧 현실진이 체험한 상처(trauma)나 박탈(deprivation), 좌절(frustration)이 그의 잠재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다가 그것을 보상(compensation)받기 위한 방편으로 空

想世界에서 변형, 위장되어 K에게 投射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회생화>가 창작·발표되기까지는 早婚이 항상 마음속 깊이 잠재적으로 불만스러웠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왜 두 살 위의 順得과 비교적 무난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이 시대의 早婚과 연관된 시대적 풍조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新學問에 물든 사람들은 舊 가정에서 성장하여 조흔하게 된 그들의 부인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이들 중에는 사회 명사들 특히 文人들이 많아서 이들의 소위 신여성과의 애정행각은 하나의 사회적인 풍조였고 文士들의 도덕적 악성병이 널리 퍼져서 春園이 <文士와 修養>이란 글을 쓸 정도였다. 그러나 憑虛만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방골 기방에도 자주 드나들기는 했으나 더 이상 빠져들지 않고 아내만을 평생의 반려자로 하여 살았다. 22세 때 대구에서 기생 春心の 유희를 받아 관심을 보인 적이 있었지만, 그것도 그때 뿐이었다. 다만 <타락자>의 女主人公 기생 春心이 그 이름 그대로 등장하면서 실감있게 표현되었던 것은 玄鎭健의 所望思考(wishful thinking)의 발현일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는 家門에서, 특히 세째형 鼎健과 再從 尙健에게서 영향받은 反日사상을 끝까지 지켜 나가면서 대정친목회의 중심인물ियो, 친일파의 거두인 宋秉畷을 욕한 이유로 조선일보를 그만두고 1923년 최남선이 주재하던 「東明」에 오고부터는 날마다 저녁때만 되면 동료들과 어울려 다방골 민순자집과 愛施堂 집으로 몰려 다니면서 밤이 깊도록 술을 마시곤 했으니, 그의 주량은 승당입실(昇堂入室) 大酒暴飲家の 풍모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1921년에 <술 勸하는 社會>가 발표되었으니 이 무렵부터 暴飲을 한 것 같다.

暴飲의 원인이 우울증에 있다는 것은 一般的이지만 그 우울증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인가. 현실적으로는, 다시 말해서 의식세계에서는 마음속의 욕구불만이나 식민지상황에 대한 절망감 등을 들 수 있겠지만, 무의식세계에서는 상처나 박탈, 좌절 이외에도 喪失(loss)을 들 수 있겠다. 즉 玄鎭健에게 있어서는 10세 때 生母를 死別한 것이다.

물론 계모가 들어왔고, 그 아래로 이복동생 聖健이 태어났으며 성장 후에는 養母가 있었지만은 성장기의 상처(trauma)나 상실(loss)을 보상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離別時期에 따라 어린이는 성장한 뒤에 달리 반응한다는 보고가 나와 있어 Harmond(1975년) 등은 生後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이별할 때가 특히 심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Robertson(1971)은 이를 2가지 경우로 나누어 다르게 보았다. 첫번 경우는 어린이에게서 母에의 집착이 생긴 뒤나 그 사실이 뒤에 쉽게 기억되지 않는 그런 시기에 離別한 어린이로서, 이 때는 母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쉽게 적응하여 전과 같이 새 집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두번째 경우의 시기는 어린이가 좀더 성장하여 이별하더라도 그 어머니를 쉽게 기억해 내고 또 언젠가는 그 어머니가 돌아오려니 기대하는 때로서, 이때는 代母에 집착하는 현상이 일어나기가 훨씬 힘들다고 하였다.”¹¹⁾

時期的으로 볼 때 현진건의 경우는 로버트슨의 두번째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모에게 집착하는 현상이 훨씬 어려웠을 것이고, 死別한 生母가 언젠가는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空想 속에서 지우지 못했을 것이다. 士大夫家의 체통과 개화된 집안의 교육지도에 의해 말없이 지냈겠지만 그의 잠재의식 속에는 언제나 生母의 환상이 차리잡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生母의 환상이 급기야는, 15살에 早婚하게 된 두살 위의 아내 順得에게 投射되어 그녀는 아내이면서 자상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비쳤을 것이다. 환언하면 현진건은 아내에게서 잃어버린 母性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早婚의 불만이 잠재의식 속에 도사리고 있으면서도 母性에 대한 그리움으로, 일종의 兩價性(ambivalence)이긴 하지만 아내에게 도리를 다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大酒暴飲하고 기생집엘 드나들긴 했지만, 그리고 早婚한 文士들이 新女性과 벌이는 애정행각이 시대적 풍조가 된 와중에서도 무난히 가정을 유지했을 것으로 본다. 실제 <회생화> 이후에 발표된 <貧妻>, <술 勸하는 社會>, <墮落者>의 주인공 <나> 또는 <남편>의 아내에게서, 아내이면서 어머니와도 같은 관대하고 자상한 면면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현진건의 다섯 형제 (이복

11) 趙斗英: 李箱 初期作品的 精神分析(신경정신의학, Vol. 16, No.1, 1977. p. 15~16).

동생 聖健을 포함해서) 중에서 姉妹가 한 사람도 태어나지 않아서 女子가 없다는 사실이 그의 환상적인 母像을 더욱 강화시켜 주고 있다.

空想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아내에게 投射되던 母像이 마침내 작품 속에서 변형, 위장되어 형상화된 것이 바로 처녀작 <희생화>의 女 주인공 S다. 현진건의 內在의 욕구인 母像이 id(무의식) 속에서 S라면, ego(自我) 속에서의 K는 바로 현진건 자신이다. 즉 의식세계에서의 현진건은 K가 되는 것이다. 프로이드의 理論을 따른다면 id 즉 S로 投射된 母像은 supe-ego(超自我)의 제재와 검열을 받아서 S가 죽음에 이르는 어렵겠지만 현진건의 id는 super-ego의 제재와 검열을 거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완고한 봉건적 인습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도 결혼할 수 없는 K를 지향없이 떠나보낸 S는 식음을 전제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쉬르의 언어관에서 로만 야콥슨이 발전시킨 은유(metaphor, 혹은 대치)와 근접(metonymy, 혹은 자리바꿈)의 二分法을 記表라는 무의식의 차원에 적용하는 라캉의 理論, 再言하면 프로이드가 억압된 욕망의 영역으로 명명한 id(무의식, 충동)에 은유와 근접의 二分法인 소쉬르의 언어관을 적용하여 주체를 설명하려고 한 라캉의 정신분석법을 적용하면 상상계(무의식)인 S와 상징계(의식)인 K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상호작용을 일으켜, 결핍(absence)이요, 혼동이고 분열된 주체에 의해 창조된 말의 세계인 실체(the real)를 형성한다. 즉 상상계인 무의식이 끊임없이 잃어버린 대상을 쫓는 동안, 상징계인 의식은 계속해서 언어의 지배를 받아 자리바꿈을 일으키므로 욕망은 끝없이 지연된다. 따라서 인생의 목적이란, 의식이 설정한 언어의 질서이기에 도달하면 저만큼 물러서는 신기루와도 같은 욕망의 산물이므로 S는 죽음에 이르지 않고,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K와 헤어지게 되며, S와 K는 각각 다른 사람을 만나 사랑의 과정을 되풀이한다는 것이다.

<희생화>에서 상대가 되는 S와 K는 결국 현진건의 空想的 母像이요, 의식세계에서의 현진건 자신이므로 결국 S를 죽게 할 수 없는데도 작품 속에서는 S가 죽게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서 죽음은 바로 복수를 상징한다. 열살 때 그에게서 어머니를 앗아간 무형적인 것에 대한 복수가 잠재적으로 억압되어 있다가 작품 속에서 터져나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士大夫家の 막내로 태어나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다가 生母를 앓기고, 실상가상으로 계모가 들어온데다 이복동생 聖健이까지 태어난으로써 동기간 경쟁(sibling rivalry)으로 패배의 열등감과 질투를 느끼고 큰 상처(trauma)와 상실(loss)을 입었던 어릴적 잠재의식이 강렬하게 투사되어 현진건의 id인 S를 죽이고 만 것이다. 작품 속에서는, S의 죽음이 연인을 떠나 보낼 수밖에 없었던 봉건적 인습에 대한 복수로 나타나고 있지만 현진건에게 있어서는 그의 의식세계 즉 현실세계에서의 복수, 다시 말하면 식민압제를 받고 있는 日帝에 대한 복수가 상징적으로 가미되어 있다고 하겠다.

〈회생화〉에는 월계화와 벚꽃이 나오며, 계절로 보아 봄에 시작해서 겨울에 끝을 맺고 있는데 이러한 이미지도 S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 S는 특히 그녀의 집 뜰앞에 심어둔 월계화를 좋아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꽃은 再生과 復活을 상징한다. 심청이가 임당수에 떠오른 연꽃에서 再生한 것이라던가, 무덤에 꽃을 놓거나 상여에 꽃을 장식하는 것은 死者의 復活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봄은 생명의 소생이지만 겨울은 죽음을 의미한다. 현진건은 처녀작 〈회생화〉를 쓰면서, 그의 무의식 속에서 空想的 母像이요 id이기도 한 S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그녀의 再生과 復活을 빌었는지도 모른다.

1920년에 〈회생화〉를 창작, 발표했으니 그 전해의 양부의 죽음을 제외한 양조모, 양모, 세째형 정건과 형수의 죽음은 이 작품과 직접적으로 정신분석학적 因果관계가 없으나 中期 내지는 後期の 소설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본다.

五. 結 言

以上の 분석으로 〈회생화〉와 현진건의 무의식세계가 대충 윤곽이 잡혔다고 볼 수 있겠으나 정밀한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첫째, 현진건의 어릴적 生育과정의 소상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 둘째, 과거, 특히 어릴적 상처(trauma)나 박탈(deprivation), 좌절(frustration), 상실(loss)을 보상(compensation)받으려는 空想的 代置(substitution)에 의해 창작활동이 이루어지지만 그 空想은 불만족스러운 현실에

대한 心的 修正작업이기도 해서, 딜레이가 말하듯이, 불균형상태인 作者의 人格이나 性格을 바로잡는 작업이 창작과정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작품 속에 형상화된 내용이, 반드시 작자의 심층심리와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회생화〉는 계절적으로 보아서 봄에 시작하여, 겨울에 S의 죽음으로 끝난다. 이것은 바로 자연의 끊임없는 순환을 의미하며 영속적인 우주적 시간을 뜻한다. S는 죽고, K는 떠났어도 이 순환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라캉에 의하면 단지 주체가 자리바꿈을 할 뿐이다. 記表(상상계)와 記意(상징계)가 무의식적 반복행위(repetition automatism)에 의해서 자리바꿈을 되풀이할 뿐이다.

현진건의 무의식(id)과 의식(ego)도 이와 같이 자리바꿈을 계속한다. 즉 자아의 각성으로 사랑에 눈을 뜬 S는 죽었어도, 그리고 K는 떠났어도, 그의 id와 ego는 무의식적 반복행위를 되풀이해서 〈貧妻〉와 〈술 勸하는 社會〉, 〈墮落者〉로 이어진다. ■